

# 법률정보허브로서 법원도서관의 지식정보공유 기능과 역할 강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Information Landmark, Court Library, Knowledge  
Information Sharing, Function and Role Expansion, Legal Information Hub

곽 승 진(Seungjin Kwak)\*, 노 영 희(Younghee Noh)\*\*  
장 인 호(Inho Chang)\*\*\*, 강 봉 속(Bongsuk Kang)\*\*\*\*  
고 재 민(Jae Min Ko)\*\*\*\*\*

## < 목 차 >

I. 서론	V. 면담 및 설문을 통한 인식조사
II. 선행연구	VI. 법원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 전략
III. 법률정보허브 사례분석	VII. 결론 및 제언
IV. 연구방법 및 절차	

**요약:**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이 법률정보허브로서 어떻게 지식정보공유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문헌조사, 사례조사, 관계자 면담, 그리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기반으로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원도서관이 법률 지식의 보급과 공유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법원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으로, 4가지의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의 역할, 다섯 가지의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의 기능, 그리고 9가지의 법률 문화 확산을 위한 접근성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법원도서관이 법률 지식 문화 대중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차세대 공유 복합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법률과 문화에 관심이 많은 국민과 법률 관련 기관 및 교육 기관 종사자, 센터의 근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상대로 법률 지식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법률정보 랜드마크, 법원도서관, 지식정보공유, 기능과 역할확대, 법률정보허브

**ABSTRACT:** In this study, we aim to comprehensively examine how court libraries can enhance their function and role as a hub for judicial information sharing. To achieve this, the current status was holistically understood based on literature review, case studies,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and surveys targeted at users. The study sought to explore and present ways in which court libraries can play a central role in the dissemination and sharing of legal knowledg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we propose four roles of the judicial information sharing complex center as a court library, five functions of the judicial information sharing complex center, and nine strategies to enhance accessibility for the spread of legal culture. If court libraries function as next-generation shared complex centers with the goal of popularizing legal knowledge culture, it would be possible to expand access to legal knowledge for citizens interested in law and culture, professionals in leg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residents living near the center.

**KEYWORDS:** Legal Information Landmark, Court Library, Knowledge Information Sharing, Function and Role Expansion, Legal Information Hub

-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jkwak@cnu.ac.kr / ISNI 0000 0004 6812 0586) (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교신저자)  
\*\*\*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oinchang@daejin.ac.kr / ISNI 0000 0004 6108 9280)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bs@jbnu.ac.kr / ISNI 0000 0004 6850 9823) (공동저자)  
\*\*\*\*\* 수원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jmko@suwon.ac.kr / ISNI 0000 0004 6814 7172) (공동저자)

- 논문접수: 2024년 5월 23일 • 최초심사: 2024년 6월 3일 • 게재확정: 2024년 6월 9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2), 83-107, 2024. <http://dx.doi.org/10.16981/kliss.55.2.202406.83>

© Copyright © 2024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I. 서론

전통적으로, 법원도서관은 판례, 법령, 법학 논문 등을 보관하며 법률 전문가들에게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러한 도서관들은 더욱 활성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지식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원도서관이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지식 창출과 공유의 중심지로서 기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법 시스템은 복잡한 법률 지식과 사례,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원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수집과 보관의 장소를 넘어서, 법률 지식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법원도서관은 국가도서관이며 최고의 법률 분야 대표도서관으로서 다양하고 귀중한 국내·외 법률정보를 수집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국민서비스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또한 법원도서관은 사법부 중앙도서관이자 국내 최대 법률도서관으로서 방대한 양의 도서 및 사법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법원, 등기소 등에서 발간되는 사법행정간행물의 납본을 시행하여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사법자료의 수집·축적 및 보존은 법원도서관의 중요한 책무이다.

법원도서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자료의 열람·대출 서비스 외에도 강연 프로그램, 전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과 공간의 제약 등으로 법률문화행사 등 다양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들의 다양한 복합적인 법률문화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소통 공감하는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서초구에서 추진 중인 중인 '사법정의허브'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법부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산하 법원들은 '사법정의허브' 조성사업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법률정보허브로서 법원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데, 첫째, 이는 법률 전문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둘째, 법률 지식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일반 대중이 법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최신 법률 동향과 국제적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전문가들이 글로벌한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이 법률정보허브로서 어떻게 지식정보공유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헌조사, 사례조사, 관계자 면담, 그리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원도서관이 법률 지식의 보급과 공유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양시에 있는 법원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외하고 서초문화벨트에서 사법

정의허브의 역할과 기능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역할과의 관계성까지 확대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이 사업에서 사법정의허브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서 일부 혼동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률정보허브라는 개념으로 일관되게 사용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법률정보시스템이나 법률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는 문헌정보학계 및 도서관계는 물론 법률정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관계로 다양한 각도와 시각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도서관 및 법률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김성은과 정종기(2011)는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도서관에서 정규교과목인 '법정보조사론'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법학도서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법률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용환(2020)은 법률 데이터 중에 판례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판례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일반인을 위한 법률정보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명예훼손 판례들을 대상으로 판례의 참조조문,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 판례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명예훼손에서 사용되는 법 조항과, 핵심 쟁점, 핵심 판례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비록 명예훼손 관련 대법원 판례에만 적용하였지만,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다양한 법률 주제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판례를 기반으로 각각의 의견이 이후의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로, 미 연방 대법원의 판례 내에 나타나는 의견 분석연구(Leibon et al., 2018), 인도 민사 법원의 판례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한 연구(Kumar & Raghuvver, 2012), 벨기에 대법원의 판례를 대상으로 법률 인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연구(Van Der Haegen, 2017) 등 다수가 있다.

법률정보원 이용행태와 관련 연구로 주석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법률가가 재판업무 및 법학연구를 위하여 주석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최신의 법령과 판례, 법이론의 현재와 법률가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원종삼과 이지연(2020)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이처럼 이용행태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적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렌디피티(Serendipity)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연구(Solomon & Bronstein, 2016), 법학 교수들의 정보욕구 및 정보추구행동에 대해 연구(Kadli & Hanchina, 2015), 법학자와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를 폭넓게 교차 비교하여 정보추구 행태에서 보이는 차이점 연구(Makri, Blandford, & Cox, 2008) 등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법원도서관의 법마루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및 개선방안 연구(곽지영, 2023)가 아주

최근에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는 법원도서관 법마루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를 설문 조사와 면담을 통해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서비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장서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장서의 전문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44%는 장서 확충을 강화해야 할 주요 서비스로 꼽았으며, 특히 다양한 이용자 층의 필요를 반영한 균형 잡힌 장서 수집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일반 국민과 법률 전문가를 위한 별도의 열람 공간 및 서비스 제공, 법률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시스템 및 홍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법원도서관 만족도 조사 연구는 법원도서관 일산 이전에 앞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 요구를 분석하고 법원도서관의 장서구성 및 공간구성 등에 대해 제안한 연구(곽승진, 노영희, 2018), 신축 청사 이전에 따라 일관성이 있고 효과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핵심 가치를 설정하는 연구(노영희 외, 2018),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연구(Winston et al., 2018) 등이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는 법원도서관이 법률정보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법정조사론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법률 교육과 연계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판례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하여 법률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최신 법령과 판례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법률 전문가의 효율적인 정보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이용자 만족도를 반영하여 균형 잡힌 장서 수집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적 법률 정보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법률 지식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법률 정보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복합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 지식의 대중화와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 Ⅲ. 법률정보허브 사례분석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의 법률정보허브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법률정보 허브의 특징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요소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1. 네덜란드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는 “평화와 정의의 국제도시(The International City of Peace and Justice)”로서 최초의 국제분쟁해결기구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사법재판소(ICJ) 등 국제기구를 유치하면서 ‘국제사법 활동의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는 도시의 국제적 가치와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견학, 학술대회, 교육 등 학문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화와 정의의 수도, 세계의 법률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기구 방문 프로그램(Hague International Open Day) 운영, ICJ, ICC 등 18개 국제기구에 대한 무료투어 행사 개최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또한 국제 학술대회 개최,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외에 헤이그의 정체성을 전파하고 있다.

## 2.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는 UN 유럽본부를 포함한 41개의 국제기구, 약 750개의 비정부기구를 유치한 국제외교의 중심지로 ‘평화의 수도’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제네바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창시자와 같은 국제적인 평화활동 관련 인물들을 배출했다는 역사적 요인과 중립국으로서의 스위스의 정치적 지위, 구조나 시스템에 큰 변화가 없는 도시의 익숙함과 예측성, 안정된 사회 환경 등을 활용하여 평화의 도시, 인권의 도시라는 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1〉 스위스 제네바 국제기구

## 3. 서초구 사법정의허브 조성 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여러 문화예술 자원과 인프라를 엮어 ‘서초문화벨트’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서초문화벨트는 서초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축인 반포대로를 중심으로 우면산에서 반포한강공원까지 각 구간 특성에 맞춘 5개 특화거리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림 2> 서초문화벨트 5개 특화거리

이에 서초구는 ‘서초문화벨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사법정의허브’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서초구에는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의 공공분야 법률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협회, 법률사무소, 변리사사무소 등의 민간분야 법률기관이 소재하고 있다. 2023년 8월 기준, 서울시 등록 변호사의 39.1%(8,325명)가 서초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또한 2021년 기준, 서초구 소재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3,287개, 종사자 수는 19,017명이며, 법조단지가 위치한 서초3동의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1,978개, 종사자 수는 10,977명으로 집계된다.

서초구는 아래 <표 1>의 사법정의허브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하고 방대한 법조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법정의허브’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사법정의허브 조성사업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적	사법정의허브 조성을 통한 서초구 브랜드 가치 제고	법원과 검찰청, 로펌 등 법조 인프라가 풍부한 서초구 법조단지 일대를 사법정의허브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서초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사법정의 중심지 조성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와 같이, 서초구를 국제사법기구를 유치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사법정의 중심지’로 조성
	사법의 활발한 교류 중심지	법률 상담 및 법률전문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등 사법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중심지 조성
대상지	위치 및 면적	서초역~교대역 북측 지역 일대, 약 420,000m <sup>2</sup>
	지역적 특성	공공분야, 민간분야 법조 관련 주요기관(시설), 법률사무소 등이 위치
연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li> <li>• 전문가들이 법률 관련 교류와 논의가 가능한 국내 및 국제적 법률 학술대회 개최</li> <li>• 창업 변호사 지원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의 공간 조성</li> </ul>	

법률정보허브로서 법원도서관의 지식정보공유 기능과 역할 강화에 관한 연구

그 외 헌법재판소 도서관, 한국은행 도서관, 한국개발연구원 도서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도서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도서관, 캐나다 대법원도서관, 미국 의회 법률도서관을 대상으로 대국민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표 2〉 전문도서관의 대국민서비스

도서관명	내용
헌법재판소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8년 개관, 서울 종로구 북촌 소재 헌법재판소 내에 위치</li> <li>• 공법 전문도서관이지만 1997년부터 장벽없는 대국민서비스</li> <li>• 약 18만 권의 장서와 597종의 연간물, 16종의 신문, 945종의 비도서 자료 보유(2023년 4월 기준)</li> <li>• 2층 일반자료실의 경우 전면 개방 대국민서비스, 3층 법률자료실은 법학연구 등 법률자료 연구 목적이 있는 경우 자료조사연구실 제공, 법률자료 조사, 연구지원 장비 제공 등 연구지원서비스 제공</li> <li>• 전국도서관운영평가에서 전문도서관 부문 우수 도서관으로 2회 선정</li> </ul>
통일부 통일정보자료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자료를 국민 일반에게 공개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서비스 창구역할을 수행하고자 1989년 북한자료센터 개설</li> <li>• 광화문우체국 6층에서 시작하여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 위치</li> <li>• 2026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인근 통일부 통일정보자료센터로 재개관 예정</li> <li>• 총사업비 445억 원, 대지면적 6,600㎡ 위에 연면적 약 8,000㎡ 규모 건립</li> <li>• 자료센터의 기능과 더불어 통일과 북한 관련 연구 지원, 통일 사료 수집 및 전시와 민관 연구기관 소통 창구 기능</li> <li>• 통일사료관 기능, 고도화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등으로 대국민서비스</li> </ul>
한국은행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남대문구 한국은행 본관 4층에 위치</li> <li>• 금융기관, 대학, 연구소 소속 직원의 학술 및 연구 지원 서비스</li> </ul>
한국개발연구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세종시로 연구원 이전하면서 연구원 내에 위치</li> <li>• 국가경제정책 및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 과제 큐레이션, 자료 배달 서비스, 매체 변환 서비스, 저널 컨텐츠 서비스, 오픈액세스 프로젝트 등 학술 연구지원</li> <li>• 연구원, 학계, 공무원, 기업인 및 국민, 협약 도서관 대상 대국민서비스</li> </ul>
조세재정연구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세종시로 연구원 이전하면서 연구원 내에 위치</li> <li>• 신분증 만으로 누구나 출입 가능</li> <li>• 일반인의 경우 자료의 관내 열람 및 복사 가능</li> </ul>
일본 최고재판소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최고재판소 본관 내에 위치</li> <li>• 전문 정보서비스를 변호사, 변리사, 사법소 직원, 법률학 담당 교직원, 사법연수생, 법무사 사무소 직원 대상 실시</li> <li>• 학술 연구 목적의 18세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반 대국민 서비스 병행</li> </ul>
일본 법무성 법무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즈룸 서비스, 법령 외국어 번역 서비스, 법무사료전시실 운영 등 대국민서비스를 다각도로 제공함</li> </ul>
중국 최고인민법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최고인민법원 내에 위치</li> <li>• 최고인민법원 직원, 법률전문가, 변호사와 일반 이용자 대상 서비스 실시</li> <li>• 판례, 중국법률, 국외법률문헌 및 DB 검색, 관보, 고대 중국 데이터베이스 제공</li> <li>• 중국최대 법률지식탐색 시스템 'FAXIN'을 전문적 지능형 시스템으로 구축</li> <li>•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 인민재판 성과 전시회,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홍보하고 실천하는 인민 법원 성과 전시회 개최</li> </ul>
홍콩 중심법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 중심법원 내에 위치</li> <li>• 사법부 구성원 대상 법률 참고 자료 제공 및 정보서비스 실시</li> </ul>
대만 최고법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 최고법원 내에 위치</li> <li>• 법원 직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학의 법학 전공 교수, 학생 및 연구직 대상 서비스</li> <li>• 사법원 법학 자료 검색 시스템 제공</li> <li>• 법률 문헌과 DB, 관보 검색 등</li> </ul>
독일 연방대법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연방대법원 내에 위치</li> <li>• 독일 연방대법원인 Bundesgerichtshof의 도서관은 법률 서적, 판례, 연구 자료 등을 수집하여 접근 제공</li> <li>• 법률 관련 자료와 정보의 검색, 리서치 지원, 전문 도서관 서비스로 법률 분야 정보 제공</li> </ul>

도서관명	내용
캐나다 대법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대법원 내에 위치</li> <li>• Supreme Court Library는 서적, 판례, 법률 데이터베이스 등을 수집하고 국민들에게 법률 관련 정보 접근을 제공</li> </ul>
미국 의회 법률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의회 내에 위치</li> <li>• 법률 관련 자료와 판례, 법령 등의 수집, 저장, 보관을 담당하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전문 도서관집, 연구 지원 등을 통해 법률 관련 정보 제공</li> </ul>



- 전문도서관의 핵심 특성이 일차적으로 모기관 내부에 위치하며, 모기관의 임직원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기에 전문도서관의 위상은 모기관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음
- 전문도서관의 위상을 공고히 접하기 위해서는, 모기관의 사명에 밀접하게 전문도서관이 기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모기관의 특성에 맞게 소속된 전문도서관의 공통된 대응전략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함
- 전문도서관의 주제 특화 장서, 인력 등 자원에 기반한 전문도서관으로의 주제 전문 서비스와 병행하여 최근에는 대중 친화적 대국민서비스까지 확대하는 추세임
- 최근의 도서관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전문도서관의 새로운 역할로서 모기관과 대외 이용자를 연결하는 매개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부상됨
- 전문도서관의 특성화 서비스와 대국민서비스 각각에 두는 비중의 차이는 기관마다 상이함
- 공공기관 또는 유사 특성을 지닌 모기관의 특성에 따라 대국민 봉사 역할을 도서관 서비스와 결합하여 모기관의 역사관 서비스, 모기관의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서비스와 함께 복합문화시설로서 라키비움화 하여 수행함

#### 4. 시사점

현재, 법원도서관은 사법부 견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시민 법률교육, 모의법정 등 사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민과 사법부간의 친근감을 제고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 법률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률 분야 전문가들의 교류와 논의가 가능한 국내·외 법률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법조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야 정보자원, 정보서비스, 교류 및 논의의 장 등 시설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설, 인력, 보안체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대법원 상황에서는 상기에서 제시한 ‘사법정의허브’ 조성사업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사법의 중심지로서의 네덜란드 헤이그와 국제외교와 평화의 상징인 스위스 제네바 사례는 우리 사회의 법률적 이해와 교육을 증진시키고, 법률 전문가 및 일반인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의 전문도서관 패러다임 변화 중 하나는 전문도서관이 모기관과 대외 이용자 및 일반 시민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도서관은 법률 특화 장서, 인력, 시설 등 자원에 기반하여 법률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을 위한 친화적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IV.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법률정보허브로서 법원도서관의 지식정보공유 기능과 역할 강화를 모색하기 위



법률정보허브로서 법원도서관의 지식정보공유 기능과 역할 강화에 관한 연구

해 문헌분석 및 사례분석, 그리고 사법 관련 관계자 면담 및 실제 이용자 대상 설문과정을 거쳤다.

첫째, 문헌분석을 통해 법원도서관 관련 기존의 연구문헌을 조사하고, 법원도서관의 민간개방의 필요성과 역할변화를 모색하는 선행연구들을 조사분석했으며,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사례분석을 통해 ‘사법정의허브’ 조성사업에 맞추어 법원도서관의 법률정보허브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기 역할변화 관점에서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현재의 법원도서관의 현황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건축 분야 전문가 등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법원도서관 주 이용자인 내부이용자(법관, 법원공무원 등), 외부이용자(변호사, 법률분야 종사자, 로스쿨 또는 법대 교수 및 학생 등)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과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 <그림 3>과 같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역할 및 기능을 도출하였다.

단계	연구방법		연구내용
1단계	현황 분석	문헌분석	- 법원도서관 관련 연구자료 조사 및 분석
		사례분석	- 법원도서관이 추구해야 하는 법률정보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의 사례 조사 - 법원도서관이 벤치마킹할 부분과 현재의 한계 분석
2단계	인식 조사	관계자 면담	일시 - 2023년 10월 15일 ~ 2023년 10월 28일
			진행방법 - 인터뷰 문항을 메일을 통해 온라인 발송하여 조사함
			참여자 - 법률 분야 전문가,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분야 전문가, 공공건축물 설계 및 관련 업무를 수행 전문가 등 총 8명
		이용자 설문	면담내용 - 법률전문가를 위한 정보서비스, 국민을 위한 복합문화서비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면담함
			일시 - 2023년 10월 30일 ~ 2023년 11월 10일
			진행방법 - 온라인 설문 조사 배포
참여자 - 내부이용자(법관, 법원공무원 등), 외부이용자(변호사, 법률분야 종사자, 로스쿨 또는 법대교수 및 학생 등) 206명			
설문내용 - 일반사항, 법원도서관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건립/설치,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대국민서비스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함			
3단계	정책 제안	시사점 도출	- 문헌분석, 사례분석, 관계자 면담, 이용자 설문 등을 총체적인 시사점 도출
		역할 및 기능 제안	- 법률정보허브로서의 역할 및 기능 도출 및 총체적 제안

<그림 3> 연구절차 및 연구추진체계

## V. 면담 및 설문을 통한 인식조사

### 1. 관계자 면담을 통한 인식조사

면담내용은 법률전문가를 위한 정보서비스와 국민을 위한 복합문화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집

중하였다. 면담대상은 법조인,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전문가, 건축분야 전문가 등 총 8명으로 하였으며, 법원도서관의 추천과 관련연구가 있는 교수진을 제외하였다. 면담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면담내용은 법원도서관이 아닌 법원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확장을 위해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가 되는 것에 전제 하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외의 질문 내용은 지면의 한계상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 가. 법률전문가를 위한 정보서비스

먼저, 이후 법원도서관이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에서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률전문가를 위한 정보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1) 법률전문가 대상 온라인 서비스, 2) 각종 법률자료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서비스 확대, 3) 다양한 법률 관련 도서관과의 협력 네트워킹, 4) 어디서든 판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 5) 지능형 데이터 분석서비스 등을 도입, 6) 연구중심공간 조성, 7) 연구중심공간 내 전담 사서직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8) 대형 로펌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최신 법률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3〉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를 위한 정보서비스

항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전문가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다 보니 온라인 공간에서 필요한 자료와 판례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음</li> <li>• 전문가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전문 사업자에게 맡기고,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해 법률 교양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만 제공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 필요</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률전문가 대상 온라인 서비스</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법률자료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서비스의 확대, 판결문공개, 제공서비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법원 외에 변호사 등도 쉽게 하급심이나 대법원 판례를 확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법률 관련 도서관과의 협력 네트워킹 등을 통해, 복합센터가 국가법률지식정보의 허브 역할을 수행</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각종 법률자료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서비스 확대</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실행, 법률전문가 이외에 국민도 집에서 판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다양한 법률 관련 도서관과의 협력 네트워킹</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부 내부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종 사법 행정지원 및 재판사무지원 서비스와 함께, 지능형 데이터 분석서비스 등을 도입, 사법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사법부 지식정보의 디지털 아카이빙 및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법부의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으로 기능</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어디서든 판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를 전면 디지털화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됨</li> <li>• 도서관 자료를 직접 수집해 연구하는 교수나 변호사는 극히 일부</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지능형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을 도입</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중심공간 조성 필요</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연구중심공간 조성</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칭)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내 연구중심 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그 공간에는 전담 사서직원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연구중심공간 내 전담 사서직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로펌 등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최신 법률정보를 제공</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대형 로펌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최신 법률정보를 제공</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실 공간 및 컴퓨터 수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부분임</li> <li>• 법원 내 발간 자료 중 종합법률정보에 수록되어 있으나 내부 열람만 가능한 자료들이 상당수 있는데, 위 자료들에 대한 외부 공개 확대</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9) 외부 공개 확대</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의 온라인 저널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독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져서 도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학교에서는 아예 외국 온라인 저널 등을 구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외국 온라인 저널 확대</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회원으로 등록된 법률전문가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li> <li>• 일반 장서의 열람 기회도 회원으로 등록된 법률전문가에게 확대 필요</li> </ul>	

나. 국민을 위한 복합문화서비스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 법원도서관이 국민을 위해 제공해야 할 복합문화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강조했다던 것은 오랜 기간(20~30년 이상) 법관으로 봉사하다가 정년퇴직한 연로 법관을 모셔 국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라면, 다양한 복합 문화 커뮤니티 스페이스로써 열린 공간제공,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라키비움(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포괄)의 도입과 전시, 문화, 교육 등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공간유연성을 확보 등이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4> 국민을 위한 복합문화서비스

항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이 아닌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전문 복합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거리는 많지 않아 보임</li> <li>• <b>오랜 기간(20~30년 이상) 법관으로 봉사하다가 정년퇴직한 연로 법관을 모셔 국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토크 콘서트 등)</b></li> <li>• 오랜 재판 경험과 그 과정에서의 고뇌와 고충 등을 국민들께 공유한다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랜 기간(20~30년 이상) 법관으로 봉사하다가 정년퇴직한 연로 법관을 모셔 국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토크 콘서트 등)</li> <li>• 오픈스페이스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음악회 개최, 체험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재판 교육프로그램 운영, 판사 라이브 토크, 정기적인 대법관과 시민의 북토크, 시민 변론 토론 대회, 국민 모의법정 운영 등)을 기획하고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법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엄숙, 권위, 가지 말아야 할 곳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선봉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b>다양한 복합 문화 커뮤니티 스페이스로써 열린 공간으로 건립</b></li> <li>• 오픈스페이스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음악회 개최, 체험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재판 교육프로그램 운영, 판사 라이브 토크, 정기적인 대법관과 시민의 북토크, 시민 변론 토론 대회, 국민 모의법정 운영 등)을 기획하고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픈스페이스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음악회 개최, 체험프로그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터넷 서비스인 종합법률서비스의 충실화로 나아가야 할 것</b></li> <li>• 법률지식과 문화 등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b>법원도서관이 제공하기 어려운 실제 체험형, 참여형 각종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제공 및 특히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지도 확대와 이용률 제고</b> 등이 가능한 여러 제안 내용이 매우 긍정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서비스인 종합법률서비스</li> <li>• 법원도서관이 제공하기 어려운 실제 체험형, 참여형 각종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정보는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중요한 정보</li> <li>• 하지만 내용이 어렵고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커서 법률지식정보에 대한 관심도가 맞은 실정임</li> <li>• <b>전문법률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할 때 법률지식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많은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됨</b></li> <li>• 공간구성은 <b>복합문화공간으로써 라키비움(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포괄)의 도입과 전시, 문화, 교육 등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공간유연성을 확보</b>하여 일반국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복합문화 시설로 인식함으로써 국민들의 법률정보 접근성도 향상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라키비움의 도입과 전시, 문화, 교육 등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공간유연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대상의 풍부한 복합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법부 생산 및 소장 법률문헌 및 자료의 디지털 자원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b>디지털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과 체험, 문화 프로그램이 가능함</b></li> <li>• 전시관 또는 디지털 체험관을 마련하고 모의법정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를 위한 법률교육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안</li> <li>• 첨단기술과 디지털 콘텐츠를 적용하여 고전과 역사, 법정소설과 영화 등을 매개로 실생활에 가까이 있는 법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기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과 체험, 문화 프로그램</li> <li>• 법률전문 교양 강좌 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 관련 도서 독후감 대회, 법률 관련 교양 강좌 개설 등</li> <li>• 법교육 기회 확충, 법률 관련 세부 주제에 관련된 문학, 영화 등의 큐레이팅 등 법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li> <li>• 법률문화예술콘서트와 같이 컨셉이 모호하고 보여주기식 행사가 될 가능성이 큰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li> <li>• 공간적 배치에서도 재판 및 연구를 위한 업무 공간과 충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li> <li>• 대법원과 부지를 공유하는 기관에서 일반 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으며, 변호사협회 등 해당 문제에 대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에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교육 기회 확충, 법률 관련 세부 주제에 관련된 문학, 영화 등의 큐레이팅 등 법문화 확산</li> <li>• 법률문화예술콘서트와 같이 컨셉이 모호하고 보여주기식 행사가 될 가능성이 큰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li> </ul>

## 2.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대상은 내부이용자(법관, 법원공무원 등), 외부이용자(변호사, 법률분야 종사자, 로스쿨 또는 법대교수 및 학생 등) 등이며, 총 206명이 응답하였다. 설문방법은 비대면 방식(온라인 설문조사)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원도서관 및 서초동 주변의 사무실 등에 일일이 전화하여 요청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사항, 법원도서관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건립/설치,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대국민서비스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법원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 측면에서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에서는 '20대' 8명(3.9%), '30대' 51명(24.8%), '40대' 78명(37.9%), '50대' 59명(28.6%), '60대 이상' 10명(4.9%)으로 나타나 40대의 설문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거주지역에 대한 설문에서는 '서울특별시' 107명(51.9%)으로 나타나 과반수를 넘었으며 다음으로는 '경기도' 59명(28.6%), '부산광역시' 13명(6.3%)으로 파악되었다. 직업에 대한 설문에서는 '법관' 60명(29.1%)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설문참여집단으로 파악되었으며 '법원공무원' 58명(28.2%), '변호사' 32명(15.5%), '도서관 사서' 16명(7.8%), '법률분야 종사자' 13명(6.3%)순으로 조사되었다.

경력에 대한 설문의 경우 '1년 미만' 9명(4.4%), '1년 이상 - 5년 미만' 20명(9.7%), '5년 이상 - 10년 미만' 30명(14.6%), '10년 이상 - 15년 미만' 47명(22.8%), '15년 이상 - 20년 미만' 38명(18.4%), '20년 이상' 62명(30.1%)으로 파악되어 20년 이상 근무집단의 설문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 가. 법원도서관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먼저, 법원도서관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법원 도서관 방문횟수에서는 '주 3회 이상' 8명(3.9%), '주 1-2회 정도' 19명(9.2%), '월 1-2회 정도' 27명(13.1%), '연 1-2회 정도' 37명(18.0%)으로 파악되었다.

〈표 5〉 법원도서관 방문 횟수

항목	N	%	
법원도서관 방문 횟수	주 3회 이상	8	3.9
	주 1-2회 정도	19	9.2
	월 1-2회 정도	27	13.1
	연 1-2회 정도	37	18.0
	거의 이용하지 않음	115	55.8

법원도서관 방문목적에서는 '법률 관련 전문자료의 검색 및 이용' 33.2%, '소장도서 열람'

28.6%, '온라인 법률 콘텐츠 이용' 20.3%, '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이용' 9.3%로 파악되었다.

〈표 6〉 법원도서관 방문목적

항목		N	%
법원도서관 방문목적	법률 관련 전문자료의 검색 및 이용	100	33.2%
	소장도서 열람	86	28.6%
	온라인 법률 콘텐츠 이용	61	20.3%
	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이용	28	9.3%
	법률분야의 전문사서를 통해 필요한 정보 지원	20	6.6%
	기타	6	2.0%

\* 다중응답

법원도서관 이용시 전반적 만족도 분석에서는 '자료 및 서비스' 4.00,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3.78, '내부공간' 3.95, '이용 편의시설' 3.87, '운영기간 및 시간' 3.83, '도서관 위치 및 이동거리' 2.88로 나타나 자료 및 서비스 항목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는 내부공간으로 파악되었다. 반대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준 항목은 도서관 위치 및 이동거리로 나타났다.

〈표 7〉 법원도서관 이용시 전반적 만족도

항목	M	SD
자료 및 서비스	4.00	.93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3.78	.96
내부 공간	3.95	1.00
이용 편의시설	3.87	.99
운영기간 및 시간	3.83	.96
도서관 위치 및 이동거리	2.88	1.33

#### 나.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률 정보서비스의 중요도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서비스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재판지원을 위한 국내·외 법률 자료의 수집·보존·정리 및 제공', '법률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 발간 및 편찬', '법률종사자 및 일반국민에 대한 국내·외 법률 자료 제공', '각종 법률 관련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서비스 개발 및 지원',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으로 나타나 재판지원을 위한 국내·외 법률자료의 수집·보존·정리 및 제공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는 법률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률종사자 및 일반국민에 대한 국내·외 법률자료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낮은 법률정보서비스 중요도를 보여준 항목은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으로 파악되었다.

〈표 8〉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서비스 중요도

항목	M	SD
재판지원을 위한 국내·외 법률자료의 수집·보존·정리 및 제공	4.88	.47
법률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4.87	.49
법률종사자 및 일반국민에 대한 국내·외 법률자료 제공	4.78	.70
자료 발간 및 편찬	4.69	.75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서비스 개발 및 지원	4.21	1.16
각종 법률 관련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4.16	1.13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99	1.26

다.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건립 및 설치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의 중요기능에 대한 분석에서는 ‘법률전문가를 위한 심층적인 정보서비스’가 30.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법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법률정보 제공, 상담 및 다양한 복합 법률문화서비스 제공’ 22.2%,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구축’ 17.9%로 나타났으며 지식정보공유 복합센터 건립 위치에 대한 설문에서는 ‘대법원 주변’ 102명(52.3%)으로 나타나 과반수를 넘었으며 ‘서울법원종합청사 주변’ 61명(31.3%), ‘고양시 일산 현재 법원도서관 법마루 소재지 주변’ 21명(10.8%)으로 나타났다.

〈표 9〉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중요기능

항목	N	%
법률전문가를 위한 심층적인 정보서비스	142	30.6
법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법률정보 제공, 상담 및 다양한 복합 법률문화서비스 제공	103	22.2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구축	83	17.9
사법 문화 확산 및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 활용	51	11.0
기타	85	18.3

\* 다중응답

라.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대국민서비스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 대국민 서비스 및 프로그램 필요도를 조사하였다. 세부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소장자료 디지털화/주제별 컬렉션’, ‘VR 법률전시관 운영’, ‘사법부 지식정보 온라인 참고정보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법률정보 및 도서추천서비스’,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전시 프로그램(법원사 등)’, ‘법률 관련 교육 프로그램’, ‘법률지식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세미나, 워크숍 등)’, ‘대내외적 협력 네트워크’로 파악되어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대국민서비스/프로그램 필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소장자료 디지털화/주제별 컬렉션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는 빅데이터 기반 법률정보 및 도서추천서비스로 파악되었다.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대국민서비스/프로그램 필요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VR 법률 전시관 운영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표 10〉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대국민서비스/프로그램 필요도

항목	M	SD
소장자료 디지털화/주제별 컬렉션	4.46	.74
사법부 지식정보 온라인 참고정보서비스	4.40	.81
빅데이터 기반 법률정보 및 도서추천서비스	4.33	.80
법률지식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세미나, 워크숍 등)	4.01	.96
법률 관련 교육 프로그램	3.97	.95
대내외적 협력 네트워크	3.83	.93
전시 프로그램(법원사 등)	3.76	1.06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3.67	1.05
VR 법률전시관 운영	3.53	1.10

### 3. 면담 및 설문결과 분석기반 시사점

위의 면담 및 설문내용을 기반으로 법원도서관이 역할 및 기능변화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국가대표 법률 전문도서관으로서의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해야 하며, 이 경우 국가대표 법률 전문도서관으로서 법률정보에 대한 대국민서비스 수행, 법률정보제공기관의 중심 허브기관, 지역의 커뮤니티센터와 차세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미래지향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춘 최고의 법률 전문 국가도서관, 사법부 구성원 및 법률전문가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 추구해야 할 주요 역할은 전문화된 법률서비스 제공과 나눔, 공유의 중심지, 국가 법률지식 정보의 허브 역할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역할, 그리고 국가의 법률과 재판에 관한 지식정보의 허브 역할이다.

셋째, 정보서비스와 복합문화서비스 제공부분에서 법원도서관은 법률전문가 대상 온라인 서비스, 각종 법률자료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서비스 확대, 다양한 법률 관련 도서관과의 협력 네트워킹, 어디서든 판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보서비스 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 대국민을 위한 서비스로는 오랜 기간(20~30년 이상) 법관으로 봉사하다가 정년퇴직한 연로 법관을 모셔 국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토크 콘서트 등), 법원도서관이 제공하기 어려운 실제 체험형, 참여형 각종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제공, 디지털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과 체험, 문화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 법원도서관은 재판지원을 위한 국내·외 법률자료의 수집·보존·정리 및 제공에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의 중요기능에 대한 분석에서는 '법률전문가를 위한 심층적인 정보서비스', '법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법률정보 제공, 상담 및 다양한 복합 법률문화서비스 제공' 등의 의견이 높게 나타나,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건립 후 전문가를 위한 심층적인 법률 정보서비스 제공을 하는 기능을 중점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들을 위한 법률정보 제공과 상담이라는 대국민 서비스의 확장 기능도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대국민서비스/프로그램 운영 시 소장자료 디지털화/주제별 컬렉션과 빅데이터 기반 법률정보 및 도서추천서비스 등과 같은 자료 중심, 정보서비스 중심의 대국민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 VI. 법원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 전략

사례 분석을 통해 볼 때, 법률정보허브 조성은 그 지역의 법률적, 학문적, 그리고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헤이그와 제네바의 사례는 서초구 사법정보허브 조성 사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전문가 면담 및 이용자 인식조사결과는 법원도서관이 법률정보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의 역할 및 기능을 다양하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법원도서관의 법률정보허브로서의 역할 및 기능 강화 전략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한다.

### 1.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의 역할

먼저, 법률정보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가 법률지식정보의 허브 역할이다. 법원도서관의 주 기능은 전문화된 법률 정보서비스에 있으므로, 법률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서관, 국회도서관 등도 해당 모기관의 역할, 사명, 특징, 그리고 정보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법원도서관은 법원 관련 업무 및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은 법원 구성원인 법관, 법원공무원, 재판연구원, 기타 법조직역(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무사, 집행관 등)과 대국민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법률전문인 및 관계 직원, 국민에게 필요한 전문정보 지식과 연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전문지식 제공을



통한 재판 및 연구지원, 법원 소속 이용자층의 즉각적인 정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 도서관 역할, 법률 관련 도서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국도서관과의 정보자료 교환을 통한 국제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역할을 해야 한다. 법원도서관은 2018년 법마루 개관 후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서비스 역할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법률정보 지식 나눔'의 공간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차세대 도서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도서관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정보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보를 습득하고 검색, 접근, 제공, 보관하는 방법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은 전자도서관이나 원문 DB,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최신기술을 도입한 장서 점검 서비스나 문화 프로그램을 지향하여 대국민의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넷째,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는 도서관 시설로서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이용의 제약 없이 디지털화되고 개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제공해야 한다.

## 2.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의 기능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 문화센터로의 법원도서관은 법률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식 향유와 이해 증진, 교육활동, 문화행사,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는 도서관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는 법률 전문 정보서비스를 지향하는 대표 법률정보 전문 도서관이자, 국가도서관이므로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정보 제공, 이용자 정보접근 확대, 도서관과 협력망을 통한 자료 제공 확대를 통한 정보복지실현, 문화 서비스 제공 및 확대,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독서프로그램, 경계를 넘는 서비스 연계,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공간의 개방성, 분권형 도서관 운영 체계,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교류 협력의 플랫폼 기능, 도서관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협력체계 강화, 자원 공유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법률전문 허브 기관으로서의 기능이다.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는 법률 지식정보의 허브(HUB) 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국민이 법률에 관한 지적 욕구를 충족하고 필요한 학습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률정보 콘텐츠로 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복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별

하여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법률전문 장서 아카이브로서의 기능이다. 법원도서관은 사법부의 중앙도서관이자 법률전문 국가도서관으로서 국내·외 법률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고, 대법원의 재판사무를 지원하고, 현재는 대국민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법률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법원도서관은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주요 판결, 각종 재판자료, 법률문헌 등의 원문, '법률전자책'과 '외국법률전자책', 재판 관련 영상자료와 국내·외 법률 관련 정보를 담은 도서, 비도서, 전자책, 연속간행물을 모두 망라하여 수집하여, 법률정보의 중심지인 K-법률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대국민 지역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 제공이다. 법원도서관은 법률의 핵심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이용자 친화적인 공간구성이나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화적인 공간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판결 정보나 법률 관련 정보 이용 시 필요한 디지털 전자기기 설비 및 비품, 기기의 도입, 도서관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법률자료를 활용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기능: 법률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사 자료 등을 전시 및 홍보하고, 법률 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하며, 법률 교육 워크숍을 법조인 및 법학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최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차세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 법률 지식 문화 대중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차세대 공유 복합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법률과 문화에 관심이 많은 국민과 법률 관련 기관 및 교육 기관 종사자, 센터의 근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상대로 법률 지식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법률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법과 예술을 융합한 전시회 같이 다양한 문화와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법률 문화의 확산과 국민들의 문화적 향유를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법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

### 3. 법률 문화 확산을 위한 접근성 확대 방안

법률 문화의 확산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적절히 법적 도움을 받는 데 중요하다. 이는 민주적 가치를 증진시켜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촉진한다. 또한, 사회적 신뢰와 안정을 구축하며,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을 지원한다. 법률 문화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는 포용적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법률 문화의 확산은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는 법원도서관의 역할 확장을 통해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며,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 가. 법률지식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일반인들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각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의 강연과 실전 사례 연구를 통해 실용적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강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오픈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기초 지식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법적 용어 해설, 법의 구조와 체계 소개 등을 포함한 법률 기초 오픈 세미나 제공, 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예시 제시, 특정 법률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한 법률 분야별 워크숍 개최, 수사법, 형사법, 상속법,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에 대해 전문가들이 강연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 마련, 그리고 참가자들이 실제 사례를 토대로 법률 적용 방법을 학습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이다.

또한 법률정보 활용 워크숍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법률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법률 정보원과 검색 도구에 대한 안내와 활용법을 소개하고, 법률 정보검색 및 해석의 기술을 실습을 하며, 참가자들은 실제 상황에서 법률정보를 찾아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나.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업 추진

해외의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법률 교육, 연구 프로젝트, 국제 학술 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도 권장된다. 법학과, 법학 연구소, 국제 법률 연구 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문적인 교류와 연구 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법률 문화의 확산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사회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법률 지식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법률적 소양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 파트너십 및 협업 프로젝트 추진

법률 문화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파트너십 구축, 외부 전문가의 초청, 그리고 협업 프로젝트의 추진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법률 지식의 확산과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첫째, 파트너십 구축이다. 법률 문화 확산을 위해 법률 관련 단체, 기관, 대학 등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하며, 참여 기관들 간의 지식, 자원 및 네트워크를 공유한다. 파트너십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폭넓은 대중에게 법률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한다.

둘째, 외부 전문가가 초청이다. 다양한 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숍, 세미나, 특강 등을 개최하는 것은 지식 공유와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이용자들에게 실질적

이고 현실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하며, 전문가와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이는 법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깊게 하고, 법률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셋째, 협업 프로젝트이다. 법률 관련 분야에서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다양한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상호 학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며, 참여자들에게 실제적인 법률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업계 이벤트 및 네트워킹 행사 참여이다. 법률 분야의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관련 업계 이벤트, 컨퍼런스,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법률 전문가, 기업, 단체 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서로의 비즈니스, 연구, 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전략들은 대외적인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전문가와 기관들과의 협력 및 지식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법률 문화의 확산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며, 법률 지식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라.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법률 자료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핵심 전략으로, 소장 자료, 법률 문서, 판례 등의 중요한 법률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온라인 원문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법률 정보의 접근성을 크게 넓힌다. 이러한 디지털화 과정은 법률 자료의 보존을 강화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이용자들이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법률과 관련된 주제별 컬렉션을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필요한 법률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식의 정보 제공은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필요와 선호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악, 비디오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법률 정보는 보다 넓은 대중에게 법률 지식을 전달하고, 이해를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용은 법률 정보의 보급을 촉진하며, 법률 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마. 전자도서관 DB구축 및 서비스

전자도서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서비스는 법률 정보의 디지털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용자들이 지리적 제약 없이 법률 전자도서관의 자료를 검색, 열람 신청, 원문 보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필요한 법률 자료를 실시간으로 접근하고, 원하는 정보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된다. 또한, 전자기기에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는 기능은 이용자가 법률 자료를 휴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게 함으로써, 법률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전자도서관 DB 구축 및 서비스는 법률 지식의 확산과 이해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률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 바. VR전시관

VR을 활용한 가상 전시공간을 통해 법률전문도서관에서만 접할 수 있는 전시물, 체험물 등을 실감 나는 전시회장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VR을 통해 법률 관련 전시물을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률 지식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SNS와 즐겨찾기 기능을 추가해 이용자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활용 가능한 데이터 수집을 수집하며, 이를 통해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둘째, 이용자들이 가상 공간에서 전시물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직접 탐험할 수 있는 기능은 기존의 수동적 관람 방식을 넘어서 적극적인 참여와 몰입을 유도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이용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보존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용자가 가상 공간에서는 전시물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어 작품이 훼손될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넷째,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법정 체험제공이다. 이러한 법정체험은 사용자에게 실제 재판 절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가상 법정에서의 재판 체험은 실제 재판의 분위기와 절차를 실감 나게 재현하여 사용자에게 현장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통해 다양한 법률 사례를 시각화하고, 사용자가 실제로 사례를 해결하거나 법률적인 결정을 내리는 시뮬레이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례 연구 및 법률 시뮬레이션 제공이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다양한 법률 사례를 시각화하고, 사용자가 실제로 사례를 해결하거나 법률적인 결정을 내리는 시뮬레이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곧 국민들의 법률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 사. 사법부 지식정보 온라인 참고정보서비스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로서 법원도서관은 국민사법 접근성 확대를 위해 사법지식정보 온라인 참고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법률정보조사 회답, 국외정보 번역, 팩트북 및 발간자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국 UCLA 법학전문도서관은 연구자들의 집중적인 연구를 위한 체계적인 참고정보서비스와 참고자료 이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들이 특정한 자료의 서지사항을 찾고, 적절한 법적 출처를 식별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도서관의 정보시스템, 서비스 및 수집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 아. 빅데이터 기반 법률정보 및 도서추천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법률정보 및 도서추천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고 본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법률정보 및 도서추천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계속해서 정교한 정보 추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법률지식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일반 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 영역을 자동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 자.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반응형 홈페이지의 구축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의 서비스 접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이 홈페이지는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용자들은 이 앱을 통해 특정 주제나 키워드로 법률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법령, 판례, 규정 등을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는 최신 법 개정 내용, 판결 결과 등 최신 이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법률 분야의 최신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홈페이지 내에 구축된 커뮤니티 기능은 이용자들 간의 소통과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며, 법률과 관련된 경험 공유와 의견 교환을 촉진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용자 참여를 높이고, 법률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킨다.

이러한 반응형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구축은 법률 정보의 디지털화 및 모바일 접근성을 강화하며,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법률 지식을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법률 문화의 저변 확대와 법률적 소양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Ⅶ. 결론 및 제언

법원도서관은 국가 법률지식정보의 허브로서, 전문지식 제공을 통한 재판 및 연구지원, 법원 소속 이용자층의 즉각적인 정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도서관 역할, 법률 관련 도서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국도서관과의 정보자료 교환을 통한 국제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법원도서관의 법률지식정보 허브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도서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서 '법률정보 지식 나눔'의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미래지향적 도서관 서비스 제공 역할로 전자도서관이나 원문DB,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최신기술을 도입한 장서점검 서비스나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대국민의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접근이 용이한 국가

대표 법률 분야 전문도서관으로서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에게도 이용의 제약 없이 디지털화되고 개방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정보제공 기능, 서비스 기능, 교육 기능, 공간 및 공동체 인프라 기능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정보 콘텐츠를 수립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북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주요 판결, 각종 재판자료, 법률 문헌 등의 원문, '법률전자책'과 '외국법률전자책', 재판 관련 영상자료와 국내의 법률 관련 정보를 담은 도서, 비도서, 전자책, 연속간행물을 모두 망라하여 수집하여, 법률정보의 중심지인 K-법률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판결 정보나 법률 관련 정보 이용 시 필요한 디지털 전자기기 설비 및 비품, 기기를 도입하고, 도서관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률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사 자료 등을 전시 및 홍보하고, 법률 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하며, 법률 교육 워크숍을 법조인 및 법학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최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법률 문화 확산을 위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법률지식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업 추진, 파트너십 및 협업 프로젝트 추진, 업계 이벤트 및 네트워킹 행사 참여, 디지털 아카이브, 전자도서관 DB구축 및 서비스, VR전시관, 사법부 지식정보 온라인 참고정보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법률정보 및 도서추천서비스,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등이 있다.

법원도서관은 법률 지식 문화 대중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차세대 공유 복합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법률과 문화에 관심이 많은 국민과 법률 관련 기관 및 교육 기관 종사자, 센터의 근접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상대로 법률 지식 접근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승진, 노영희 (2018). 법원도서관의 대국민서비스 개방에 따른 이용자요구 분석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3), 215-246. <https://doi.org/10.4275/KSLIS.2018.52.3.215>
- 곽승진, 노영희, 신재민 (2017). 복합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의 공간구성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7-2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7.28.3.007>
- 곽지영 (2023). 법원도서관 법마루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3), 273-295. <https://doi.org/10.14699/kbiblia.2023.34.3.273>
- 김성은, 정종기 (2011).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실행에 나타난 법률 정보활용교육 실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4), 103-122. <https://doi.org/10.4275/KSLIS.2011.45.4.103>

- 김용환 (2020). 법률정보시스템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적용 방안 - 명예 훼손 판례를 대상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1), 387-409.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1.387>
- 노영희, 안인자, 최만호, 노지윤 (2018).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핵심가치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4), 111-135. <https://doi.org/10.4275/KSLIS.2018.52.4.111>
- 원종삼, 이지연 (2020). 법률정보원 이용행태에 기반한 주석서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7(1), 127-151.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1.127>
- Kadli, J. H. & Hanchinal, V. B. (2015). Information seeking behaviour of law students in the changing digital environment. DESIDOC Journal of Library & Information Technology, 35(1), 61-68. <https://doi.org/10.14429/djlit.35.1.8099>
- Kumar, R. & Raghuvver, K. (2012). Legal document summarization using latent dirichlet allo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and Telecommunications, 3, 114-117.
- Leibon, G., Michael L., Reed H., Allen R., & Dan R. (2018). Bending the law: geometric tools for quantifying influence in the multinet network of legal opinion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26(2), 145-167. <https://doi.org/10.1007/s10506-018-9224-2>
- Makri, S., Blandford, A., & Cox, A. L. (2008). Investigating the information-seeking behaviour of academic lawyers: from ellis's model to design.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44(2), 613-634. <https://doi.org/10.1016/j.ipm.2007.05.001>
- Solomon, Y. & Bronstein, J. (2016). Serendipity in legal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slib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68(1), 112-134. <https://doi.org/10.1108/ajim-04-2015-0056>
- Van Der Haegen, M. (2017). Building a Legal Citation Network: The Influence of the Court of Cassation on the Lower Judiciary. Utrecht Law Review, 13(3), 65-76.
- Winston, A., Roudik, P., Bavis, B., & Sokol, D. (2018). The law library of congress: a global resource for legal education. Journal of Legal Education, 67(4), 962-983.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Sung-Eun & Jung, Jong-Kee (2011).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legal information usage education in the curriculum of Korean law schoo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4), 103-122.



<https://doi.org/10.4275/KSLIS.2011.45.4.103>

- Kim, Yong Hwan (2020). Text mining application methods for legal information systems: focused on defamation cas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1), 387-409.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1.387>
- Kwak, Jiyong (2023). A study on user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Beopmaru service of court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3), 273-295.  
<https://doi.org/10.14699/kbiblia.2023.34.3.273>
- Kwak, Seun-Jin & Noh, Yonghee (2018). A study on the analysis of user needs following the public service opening of court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3), 215-246.  
<https://doi.org/10.4275/KSLIS.2018.52.3.215>
- Kwak, Seun-Jin, Noh, Yonghee, & Shin, Jae-Min (2017). A study on the spatial composition of libraries as complex cultural institutio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3), 7-2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7.28.3.007>
- Noh, Younghee, Ahn, In-Ja, Choi, Man-Ho, & Ro, Ji-Yoon (2018). A study on deriving core values for public serv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4), 111-135.  
<https://doi.org/10.4275/KSLIS.2018.52.4.111>
- Won, Jong Sam & Lee, Jee Yeon (2020). A study on legal commentary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the usage patterns of legal information sour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1), 127-151.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1.127>